

# 맨발걷기 열풍에...광주·전남 맨발길 조성 '붐'

시민들 "발 지압에 건강해진 느낌" 지자체들 곳곳 산책로 만들고 민원에 공원부지 설계변경 계획 무분별한 산책로 조성 요구하고 남의 땅에 황토 끼얹어 눈살도



19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공원 인근 아산에서 시민들이 맨발로 걷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최근 광주·전남에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다.

맨발 걷기는 어싱(Earthing)으로도 불리며 신발을 벗고 맨발로 황토, 마사토 등 부드러운 흙길을 걷는 운동법이다.

최근 전세계적인 맨발 걷기 인기에 힘입어 광주와 전남 곳곳의 공원과 산책로, 등산로 등에도 지자체가 조성하거나 시민들이 직접 만든 맨발 산책로(이하 맨발길)가 들어서고, 방문객도 연일 늘고 있다.

19일 오전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는 기온 13도 인덱의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수십명의 시민들이 맨발로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선경옥(60·서구 치평동)씨는 "우연히 강연을 듣다 맨발걷기를 접하게 돼 10여차례 정도 걸어봤는데, 밤에 잠도 잘 오고 혈액순환도 좋아졌다"며 호평했다.

윤중구(61·북구 동천동)씨 또한 "4개월정도 맨발걷기를 해 보니 그냥 걸을 때와 달리 발 지압이 많이 되고, 몸이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체감된다"고 엄지를 치켜올렸다.

최근 광주시 5개 자치구는 경쟁적으로 맨발길 조성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시 서구가 지난해 12월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에 590m 길이의 맨발걷기 길을 조성한 것이 시작이다. 이곳은 일일 800명의 방문객 다녀를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서구는 나아가 금호어린이공원(길이 150m), 쌍학어린이공원(100m), 동천동 일대(300m)에도

맨발길을 조성해 각각 일일 400여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서구는 2024년까지 근린공원,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해 18개동에 23개소의 맨발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지난 달 풍영정전변경 근린공원 산책로에 160m 길이의 맨발길을 조성했으며, 올해 안에 상암·역산근린공원, 첨단1동 완충녹지 둘레길 등 세 곳에 4.6km 길이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북구 문화근린공원 일대(100m), 한새봉 일대(350m), 남구 봉선동 유안공원(112m), 행암동 천변길공원(220m)에도 맨발길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 또한 지난달 18일에는 중앙(2지구) 개발 행위특례사업부지 내에 맨발길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아 공원부지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서구 풍암동 풍암호수공원과 북구 중외공원 편백

숲길, 동구 운림동 제2수원지 인근 편백숲길, 남구 제석산, 광산구 어등산 등지에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맨발길이 들어섰다.

전남에서도 인기가 뜨겁다. 영암군은 19일 군서면 동구리리 왕인박사유적지 앞에서 남송정마을회관 입구까지 구리마을 일대에 500m 길이의 맨발길을 조성해 임시 개관했다.

영광군이 지난 2019년 조성한 물무산 맨발길은 하루 600여명, 주말에는 하루 2000여명까지 방문객이 몰려들고 있다. 목포시 초당산 맨발길도 하루 500~700명이 방문하는 명소가 됐다.

고흥군 팔영산, 해남군도 두륜산, 해남공원 등지에도 군 차원에서 맨발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맨발걷기 인기가 과열되면서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산책로 조성을 요구하거나, 남의 땅에 무단으로 황토를 끼얹는 등 눈살 찌푸러지는 상황도 잇따

르고 있다.

무단으로 황토길을 만들면 유리조각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등 안전 대책을 세우기도 어렵고, 부상을 입었을 때 책임소재를 찾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광주시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일부 시민이 하교 시간 이후 학교가 개방된 틈을 타 운동장 일부분에 무단으로 수m 길이의 황토길을 만들었다가 학교 측 요구로 다시 모래를 덮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시 5개 자치구도 하루도 빠짐없이 걸려 오는 맨발길 조성 요구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미 인근에 맨발길이 조성돼 있는데도 '내 집 근처에도 하나 더 조성해달라'면서 많게는 하루 10건씩 민원 전화가 걸려온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을 찾고 내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 힘쓰고 있으니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맨발 걷기 주의할 점

당뇨족 환자 등 자제 필요 관절 부하에 인대 손상 우려 발 상처 났 댤 파상풍 조심해야

최근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유행을 끌고 있으나, 오히려 맨발 걷기가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당뇨족, 당뇨성창상,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맨발 걷기를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당뇨병 환자는 발에 상처나 물집이 생기면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발바닥에 자극과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물집이 쉽게 잡히고 상처가 나기 쉬우므로 시멘트나 아스팔트를 맨발로 걸지 않아야 한다.

평발이거나 발에 습진, 무좀이 있는 사람도 자칫 통증 등의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맨발 걷기를 자제하는 게 좋다.

등산화와 같은 신발을 신으면 걸거나 달릴 때 관절이 받는 압력이 분산되지만, 맨발로 걸으면 체중 부하가 고스란히 발목과 무릎 관절에 집중돼 통증이 생기거나 연골·인대 등이 손상될 수 있다.

또 파상풍은 일반적으로 녹스 못에 찢리거나 물에 물리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파상풍균은 흙이나 모래 등에도 분포해 있을 수 있어 맨발 걷기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원영 우리들내과 원장은 "맨발 걷기를 한 뒤에는 항상 다리와 발에 상처가 나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발에 감각이 무뎠거나 상처가 나더라도 아예치기 어려워하는 당뇨병 환자 등 발 건강에 민감한 사람들은 맨발 걷기를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영광 등 한빛원전 수명연장 초안 문제점 지적 장성·무안은 "내용 어려워" 의견 제시도 안해

영광, 고창 등 원전 소재 지자체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장성·무안군은 사실상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주민 안전과 환경 문제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광군은 19일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지자체 초안 검토를 거쳐 피폭선량 평가 대상에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항(국가항구)을 포함할 것을 보완 사항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중대사고를 반영할 것을, 부안군은 피폭선량을 면단위로 평가할 것을 보완 요청했고 함평군도 의견을 냈다.

이들 단체의 초안 검토와 보완요구는 법적 절차

다. 한수원은 수명연장에 앞서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km) 내 기초지자체(영광, 함평, 무안, 장성, 고창, 부안)에 초안을 제시하고 해당 지자체의 보완요청에 응해야 한다. 보완요청이 없다면 주민 공람 다음 법적 절차가 이행된다.

이들 지자체가 보완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한수원이 진행하려던 주민 공람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장성군과 무안군은 '초안 내용이 어려워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람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자체는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하는 대신 검토의견으로 '초안을 살펴볼 시간이 짧다'고 적었다.

장성군 관계자는 "주민과 밀접한 문제인 건 맞지만 군청 내에 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는 게 아니라

보완조치할 만한 사항을 찾는 게 쉽지 않다"며 "타 지자체가 보완요청을 하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군 역시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 워낙 어렵다 보니 문제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며 보완의무는 사업자(한수원)에게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경단체 등은 두 자치단체의 수명연장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남도가 이달 17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두고 초안 검토에 참여해 문제점 등을 전남 4개 지자체에 전달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관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초안을 접수한 해당 지자체는 공람 절차를 이행할 것이 아니라 한수원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대로 보완조치할 때까지 공람을 유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4명 75년만에 무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심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억울하게 내란 혐의, 포고령 위반 혐의를 뒤집어쓰고 군법회의에 넘겨졌던 민간인 희생자 네 명이 75년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19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 박창래(당시 35)·박채영(당시 40)·심재동(당시 37)·이성의(당시 25)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포고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 조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그 후 조사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

시했다.

희생자들에게 당시 적용됐던 포고령 제2호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갖춘 국민이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2019년 대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내려진 네 번째로 내린 무죄 판결이다.

장경자 여순민중항쟁전국연합회 회장은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우리 시대 아버지들이 한 분이라도 더 무죄를 받아야 유족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들도 기뻐하실 것"이라며 "여순사건으로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모든 이들이 무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 장점**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